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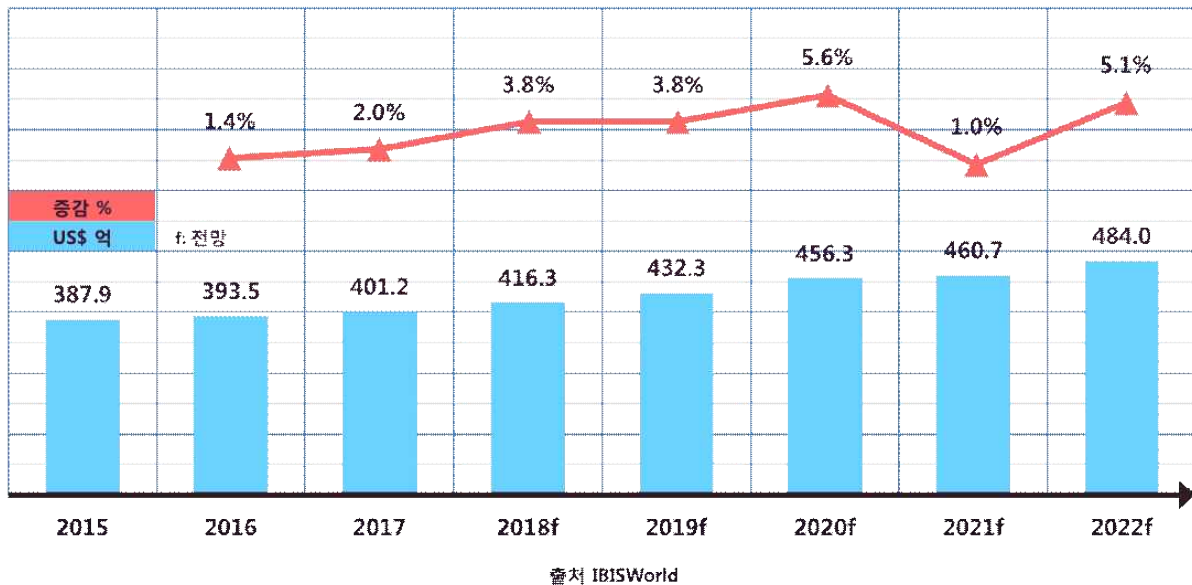
< 미국 스낵시장 현황 >

aT LA지사

□ 시장규모 및 전망

○ 미국 스낵시장은 2018년 416억 3,000만 달러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음. 스낵 소비 증가와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다양한 신제품이 뒷받침되면서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연평균 3.9% 성장율을 기록함. 미국에서 스낵은 짹짹한 칩과 시리얼 바, 팝콘 등이 포함됨

[그래프] 미국 스낵류 연도별 시장규모 및 전망



○ 식사와 간식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식사의 스낵화 (Snackification of Meals)’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하루 5회 이상 스낵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비중은 2016년 11.5%에서 2017년 14.2%로 2.7%p 증가함

○ 스낵은 대체로 식사와 식사 사이에 많이 섭취했다면 최근에는 아침 일찍부터 스낵을 섭취하는 비중이 높아졌음. 시장조사업체 IRI(Information Resources Inc)에 따르면, 아침 일찍부터 스낵을 섭

취하는 비중이 2017년 23%로 전년대비 3%p 증가함

○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9% 증가하며 소비자들의 스낵 소비가 확대되고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함. 미국의 건강식이지표(Healthy Eating Index)는 최근 5년간 증가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은 제품과 프리미엄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일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함.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서 이런 경향을 강하게 나타냄. 스낵제조업체 앰플리파이 스낵 브랜드(Amplify Snack Brands)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64%는 최소한의 재료만으로 만든 스낵을 선택했고 79%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재료로 만든 스낵을 선호함

○ 스낵 업계는 2022년 484억 달러의 시장규모가 전망됨. 케일 칩, 병아리콩 스낵과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견과류와 씨앗 스낵의 완만한 성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들은 기존 스낵보다 더 건강에 좋은 스낵을 요구함에 따라 프리미엄과 유기농 제품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분석됨

- 이국적이고 독특한 맛이 인기를 끌며 해외에서의 스낵 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로 2017년 스낵 수입은 9억 6,280만 달러로 2013년보다 무려 57.6% 늘어남

□ 품목별 판매 비중

○ 견과류와 씨앗류 스낵은 2018년 업계 전체 매출의 36.8%를 점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됨. 그 뒤를 이어 감자 칩 23.5% 토르티야와 옥수수 칩 18.8%, 기타 칩 17.8% 순으로 나타남

[그래프] 미국 스낵류 품목별 판매 비중



출처 IBISWorld

- 견과류와 씨앗류 스낵 부문은 건강 트렌드 속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임. 2013년 25.2%의 판매 비중에서 2018년 36.8%를 점하며 11.6%p 증가가 예상됨. 특히 견과류와 씨앗 함유 스낵 바는 바쁜 생활 속에서 휴대와 섭취가 용이하고 풍부한 영양을 함유해 식사 대용으로 선호도가 높아짐
- 감자 칩은 2014년 전까지만 해도 스낵시장의 제왕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견과류와 씨앗류 스낵에 밀려 점유율은 계속 하락 추세임. 2013년 26.5%의 판매 비중을 보였지만 2018년 23.5%를 점하며 3%p 감소가 예상됨

□ 유통채널별 판매 비중

○ 스낵의 유통채널은 크게 식품 도매업과 슈퍼마켓과 식료품점, 편의점, 수출 등으로 구분됨

- 도매업체에서 유통된 스낵은 2018년 3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지만 2013년 (66.3%)과 비교하면 점유율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최근 들어 스낵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간의 직거래 증가가 점유율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됨
- 슈퍼마켓과 식료품점, 편의점에서의 판매 비중은 5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소매업체들은 제조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판매 가격을 낮추면서 스낵 판매 증가로 이어짐

[그래프] 미국 스낵류 유통 채널별 판매 비중



출처 IBISWorld

□ 주요 업체현황

○ 스낵 업계는 펩시코(Pepsi-co)와 스나이더스 랜스(Snyder's-Lance) 이외에 여러 업체로 시장점유율이 분산됨

- 펩시는 Lay's, Ruffles, Doritos, Fritos, Cheetos, Sun Chips, Quaker rice cakes 등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앞세워 35.2%의 점유율로 스낵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음

- 스나이더스 랜스는 감자 칩과 토르티야 칩 부문에서 두각을 보이며 2015년 콘아그라(ConAgra Foods)를 제치고 업계 2위에 올라섬. 지난해 12월 캠벨 수프(Campbell's Soup)에 인수되었으며 Snyder's of Hanover pretzels, Lance, snacks, Kettle brand chips, Cape Cod, chips, Pop-Secret popcorn, Emerald nuts, Eatsmart snacks 등의 브랜드를 소유함

[표] 미국 스낵류 주요 업체 시장점유율

업체명	2017년	대표 브랜드	제품 현황
펩시코 Pepsi-co	35.2%	Lay's, Ruffles, Doritos, Fritos, Cheetos, Sun Chips, Quaker rice cakes	
스나이더스 랜스 Snyder's-Lance	5.9%	Snyder's of Hanover, Lance, Kettle brand, Pop-Secret, Emerald, Eatsmart, Late July	
기타	58.9%		

출처 IBISWorld

- 스낵제조업체들은 최근 5년간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프리미엄, 유기농 제품을 출시해 매출 증대에 일조함. 스킨 스틱스 스낵 (Skinny Sticks Snacks)는 퀴노아와 치아씨드 등 곡물기반 스낵 슈퍼푸드 스틱을 출시함. 프리토 레이(Frito-Lay)는 글루텐 프리 제품 라인을 확대하고 식감과 맛을 위해 구운 칩들 선보임
- 또한 스낵제조업체들은 칼로리를 염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저칼로리 제품과 한 입 사이즈의 소형제품을 선보이며 제품의 다양성을 향상시킴
- 건강 스낵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2017년에는 굵직한 인수합병이 성사됨. 앞서 언급한대로 캠벨 수프가 스나이더스 랜스를 인수했으며, 허시(Hershey)는 앰플리파이 스낵 브랜드를 인수하며 건강 스낵 라인을 확대함. 켈로그(Kellogg)는 건강 스낵 바 알엑스바(RXBar)의 새 주인이 됐으며, 마스(Mars)는 카인드(Kind)의 지분

일부를 매수함

□ 제조시설 지역별 분포도

○ 스낵 제조시설의 위치는 밀과 옥수수, 설탕 등 주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과 대도시로의 유통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함

- 미국 서부지역은 전체 스낵 제조시설의 24.7%가 위치해 있음. 이 중 캘리포니아 주는 호두와 아몬드 생산지로 견과류 스낵의 핵심 원료 공급이 용이해 17.2%의 제조시설이 운영됨
- 동부 연안지역은 17.9%의 제조시설이 몰려있으며 이중 필라델피아와 뉴욕에 각각 8.6%와 5.7%가 위치해 있음. 펜실베이니아 주는 옥수수, 콩, 밀 곡물 생산지역으로 주원료 공급이 용이하며 허쉬와 프리첼 크리스피(Pretzel Crisps) 본사가 이곳에 위치해 있음. 펜실베이니아 주는 제과류의 내수와 수출로 연간 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대서양 인접 지역은 15.7%를 점하며 세 번째로 많은 제조시설이 위치해 있음